

□ 주요발언 내용

【10시 35분, 개회】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김광덕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000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외부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범무법인 두울에 000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문화예술관광학과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부위원이십니다.

000 정책기획관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경제일자리기획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복지기획관을 대신해서 000 자활지원과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성과평

가 결과보고가 먼저 있겠고요, 이어서 민간위탁 안전 심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전은 총 5건으로 신규 1건, 재위탁 4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설형이 4건이고, 사무형이 1건이 되겠습니다.

심의 진행은 민간위탁심의팀장의 요약보고, 예산담당관 팀장의 예산검토보고, 소관부서 질의·응답, 주심위원 검토의견 발표, 참석위원 간 논의 및 의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안전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 유형은 걱정, 조건부 걱정, 심의보류, 부적정 등 총 4가지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들의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관련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해관계 유무 사전확인 및 회피신청 안내, 위원회 개최 시마다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미리 심의의결 회피신청을 해 주시고 자리에 놓인 청렴서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안전 심의를

위해서 동일 유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관리팀장님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립니다.

〈000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관리팀장 000입니다. 2023년 제3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47개 사무 중 총 6개 사무를 진행하였습니다. 6개 사무평가결과 평균은 79.05점으로 재계약 배제 대상 사무는 없습니다. '23년 전체 평균은 74.02점, 재계약 배제율은 27.7%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는 61개 사무를 진행했고, 14개 사무가 재계약 배제가 되어서 평균점수는 77.62점에서 74.02점, 재계약 배제는 23%에서 27%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안건1〉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재위탁)

〈위원장〉

- 그럼 시간관계상 안전 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번 안건은 공원여가과의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1번 안건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난지캠핑장은 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공원에 155면 규모로 설치된 캠핑장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는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위생적인 시설관리라든지 이용료 과다 부과 등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21년도 3월부터 시설형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시설 설치 및 위탁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시설형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 중이지만 운영수입이 꽤 많은 편입니다. 민간위탁금보다 좀 더 많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럼 1번 안전에 대해서 예산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저희 예산담당관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인건비랑 수당, 그리고 운영비가 좀 증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내역, 이런 걸 추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럼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십시오.
(소관부서 입장)

〈위원장〉

- 착석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일단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크게 이슈가 되는 건 없었고요. 단지 노을공원 가족캠핑장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노을공원 가족캠핑장은 시에서 제 기억으로는 직접 운영하는 이런 형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 궁금

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소관부서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과)〉

- 지금 말씀하신 노을캠핑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한강 난지캠핑장이 있는데요. 두 개의 캠핑장은 조성경위가 좀 틀립니다. 노을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립지를 통해가지고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만든 캠핑장이고요. 한강 난지캠핑장 같은 경우는 수변공간에 캠핑장을 해서 수변공간에 대한 생태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캠핑장 운영에 대한 컨셉이 약간씩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을캠핑장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02년도에 조성을 했다가 2009년도에 다시 재조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21년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한 이유가 한강 난지공원에 대한 특성화 사업을 좀 더 강화를 해보자, 수변공간을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노을공원보다 한강 난지캠핑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옆에 생태학습장이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저희 한강공원에서의 수변 상황을 개발한 것들이 같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이 조성경위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대응하는 방식이 틀리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 위원〉

- 글썄요. 설명은 들었는데 조성방식 때문에 운영을 달리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직영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민간위탁 할 때랑 어떤 게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관부서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과)〉

- 캠핑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민간 위탁하고 있는 서울 시내에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비교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자가 12명인데 한 사람당 관리하는 면적이 12면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난지캠핑장이 155면이거든요.

〈000 위원〉

- 그러니까 직영 같은 경우랑 비교했을 때 뭐가 관리방식이 더 나은가.

〈소관부서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과)〉

- 제가 직영 말씀은 안 드리는 부분이 사실 직영으로 한다면 공공성이 강화는 되는데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실까 봐 그냥 저는 민간위탁 쪽으로만 비교를 해드리려고 말씀

을 드리는 건데,

〈000 위원〉

- 어쨌든 그러면 민간위탁의 효율성 측면에서 캠핑장 운영만이 아니라 수영장이든 여러 가지 이렇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민간위탁방식이 직영보다는 낫다라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소관부서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과)〉

- 민간위탁은 외부에서 민간위탁자들의 제안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얼마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000 위원〉

- 그러니까 직영보다는 낫다라고 보시는 거죠?

〈소관부서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과)〉

-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한 결과로 보면 만족도 조사는 89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재방문 다시 와 보겠다 하는 게 98%가 나와서,

〈000 위원〉

-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이번 것은 이쪽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 충분히 들어서요 적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러면 노을공원 가족캠

핑장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같이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그냥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퇴장)

○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저는 적정으로.

<위원장>

○ 알겠습니다. 1번 안건을 적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1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2> 서울둘레길 운영 (재위탁)

<위원장>

- 2번 안건은 공원여가사업과의 “서울둘레길 운영”으로 사무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2번 안건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외곽에 있는 산, 하천, 마을길 등을 연결하는 트레킹 코스로 8개 구간에 총 156km의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개통 이후에 모든 코스를 완주하는 인증을 받은 방문객만 6만 3천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고요. 금년 말에 민간위탁이 완료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사무운영 및 민간위탁의 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둘레길의 각 코스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한 코스를 완주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또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약간 표시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길이라든지 산행 난이도 등을 좀 세분화한다면 관광객들한테도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서울둘레길 확대,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 2명 인건비를 추가 요구했고, 그리고 신규 프로그램 개설비용 등도 추가 요구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적정한 추가 요구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십시오.
(소관부서 입장)

〈위원장〉

- 그럼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예산편성 측면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2명 늘었는데 명절수당은 2배가 증가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먼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라는 곳이 산림청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었는데 저

희들이 인력이 지금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산림청 지원센터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정직원 2명이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사정상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민간업체가 아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그 밑에 제수당이라든지 퇴직수당 이게 전부 다 지금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명의 인건비만 따지더라도 거의 한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7천만 원가량, 기본급만 해도 그 정도 늘어나는데요 거기다가 제수당이라든지 퇴직수당 합치면 한 7,500까지 해서 한 1억 3,700만 원가량이 인건비만 해도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직원 2명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늘어난다는 건가요?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23년에는 없었던 연장근무수당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이것도 센터의 보수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내년도에 바뀌면 저희들이 서울시 지침에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

노무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센터 기준에서 적용을 안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목록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00 위원〉

- 특근 외식비나 이런 것도 다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안들인가요?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네, 있습니다.

〈000 위원〉

- 어쨌든 두 명 사람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4억에서 7억으로 확 늘어나고, 거기 대부분은 또 인건비 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표만 딱 주시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건지 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주 쟁점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지급해줘야 할 돈을 산림청에서 지원 받던 2명의 인건비가 기본 인건비가 증가가 되면 그 밑에 따르는 것들이 다 인상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 증액 중에 인건비가 지금 1억 3,700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그 사유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000 위원〉

○ 사무관리비는 뭔가요?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2억 5,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둘레길 안내체계가 2.0으로 새롭게 편성이 됩니다. 지금 8코스에서 21개 코스로 세분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내체계에 따른 안내지도라든지 스탬프북 완주인증서, 지금 기존에 썼던 것들을 다시 다 발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하고는 별도로 사무관리비를 책정하시는 건가요?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네, 그렇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000 위원>

○ 이것은 시에서 바로 지출하는,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네, 그렇습니다. 홍보비용이라든지, 안내체계에 따른 여러 가지 스탬프북이라든지,

<000 위원>

○ 그건 매년 2억 5,600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 그런 건가요?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저희들이 완주인증서라든지 스탬프북 같은 경우도 계속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소멸되기 때문에 계속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00 위원>

- 그것은 위탁하는 쪽에 안 맡기고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라서 따로 편성이 되는 거죠?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네.

<000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의 총 사업비용은 9억 5,600만 원.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000 위원>

○ 8개에서 21개로 한나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개편이 된 거죠?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있고, 내년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000 위원>

○ 지금 손목닥터랑 이것도 하고, 온라인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하던 종이스탬프 찍는 방식도 같이 하면서 그것도 하고 이런 건가요?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지금도 여기 종이에다가 스탬프 찍는 방식 계속 유지할 거예요?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그 방법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현재 용역 결과라든지 최종 용역은 완료는 안 됐지만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는 지금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 혹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게 전체적인 관리는 아닌 거죠? 둘레길이 훼손됐을 때 관리를 한다든지 그건 아니고.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민간위탁 쪽에서 소규모, 예를 들어서 이정표를 단순하게 고치다든

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런 부분들이 명시화 돼 있습니까?

<소관부서 (공원여가사업과)>

○ 네, 명시화 돼 있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퇴장)

<위원장>

○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논을 해도 나중에 업체 공고하고 할 때는 예산편성 다시 하시는 거죠?

<위원장>

○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시겠죠.

<000 위원>

○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겁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그냥 걱정해서 걱정 의견입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2번 안건을 걱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걱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3〉 서울 어린이 마음활짝센터(가칭) 관리 및 운영 (신규)

〈위원장〉

- 3번 안건은 아동담당관의 “서울 어린이 마음활짝센터(가칭)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형 신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 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3번 안건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울 어린이 마음 활짝센터는 초등학교 어린이의 심리, 적성 등을 온라인으로 검사 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상담을 지원하는 시설로 계획하고 있고요.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행정재산을 리모델링해서 내년 7월 달 개관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개관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신규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시설 설치 및 위탁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린이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가정 문제, 학업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친구들 간의 문제 등 심리정서 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할 때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연령대별, 그리고 부서별 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시설들이 좀 있어서요 신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사업과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방금 조직과 검토의견과 비슷하게 일단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과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과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 후에 신규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복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지금 위탁사무로 구성되어 있는 상당부분이 제3자 위탁이라든지 용역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했을 때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 신규 민간위탁시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현재 여담재 건물이 '22년까지 수선이 이미 다 완료되어 있는 건물인데 재차 리모델링을 위해서 6억 원 규모의 수선비가 또 투입되는 것도 약간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담당관 의견도 심의 보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십시오.

(소관부서 입장)

〈소관부서1 (아동담당관)〉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를 좀 깔려고 하는데, 간단한 보조자료입니다.

〈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죠.
(자료 배부)

〈소관부서1 (아동담당관)〉

-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위원장〉

- 원래 설명 없이 진행하는데 보조자료를 일단 준비하셨기 때문에 1분 정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관부서1 (아동담당관)〉

-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 어린이 활짝센터의 추진배경, 필요성하고, 유사기관과 차별화 된 점, 그리고 유사기관에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저희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어린이 인구가, 아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어린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고 사전예방적 진단도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약간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있어서, 그리고 어린이, 학부모가 약간 심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어린이 활짝센터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에 의하면 초등학교 예비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형성 등에 관련해서 사회성이 발달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이런 어린이 전용 심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사기관 차별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활짝센터는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 어린이가 자기 부모가 어린이에 대해서 심리상태에 대해서 부담 없이 참여해서 탐색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타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로 학교에서 정서행동특성 검사결과에 따라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동을 검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다른 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어린이 전용 탐색 체험공간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체험진단기법과 공간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심리진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타 기관에서는 주로 서면진단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일반 어린이들의 이용자 문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활짝센터에서는 어린이 심리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를 비교

해서 볼 때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층이고, 그리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0에서 5세까지인데 6세에서 8세까지가 지금 사각지대로 있습니다. 저희 서울 어린이 마음활짝센터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기관에서 우리 일반 어린이 대상 심리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을 9세에서 24세까지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존센터라고 유사 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중증 정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시설인데 여기에서 관련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병원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구해서 일반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최근 자살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발생한 문지마 범죄 등에 따른 문의나 상담 건수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이 30명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례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 어린이 전문 상담인력과 공간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가 회신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경우도 당초 목표가 1천 명이었는데 신청자가 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세에서 5세까지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만 1세로 제한을 해서 상담인력들이 지금 달라붙

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 어린이 전문 상담인력과 공간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말씀 들으면서 좀 더 추가로 드는 의문이 지금 연간 1만 명 정도의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하고, 또 후속지원까지 한다는 사업 내용이잖아요? 사업내용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1만 명에 대해서 결국에는 온라인 검사가 주류가 되는 것 같아요. 1만 명 정도 중에 후속지원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몇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나요?

〈소관부서1 (아동담당관)〉

○ 저희가 1만 명은 산출내역을 말씀을 좀 드리면 1만 명이 저희 어린이 마음활짝센터의 체험존을 이용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체험존에 오기 전에 물론 서면검사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그 서면검사를 가지고 활짝센터에 오는 인원인데요 그 인원이 체험존을 2시간당 한 10명 정도 돌아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한 하루에 4회 운영을 한다고 하면 1일 한 40명 정도 체험존을 방문한다고 볼 수 있고. 하루에 40명이면 일주일에 5일, 그리고 50주

하면 1만 명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000 위원〉

- 그러면 1만 명은 애초에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소관부서2 (아동담당관)〉

-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데가 민간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 정도로 부스당 한 10분 정도로 했을 때 저희가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산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것이고.

〈000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어린이 전용 탐색체험공간을 운영한다는 여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 같은데, 이 어린이 전용 탐색체험이라는 게 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좀 구체화된 게 있는지.

〈소관부서2 (아동담당관)〉

-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저희도 자문을 좀 받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를 받았는데, 저희가 크게 보면 심리나 성격 부분을 체험부스를 운영 해서 진단을 하고 적성도 좀 볼 건데,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애들의 심리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저희 민간에서 보면 성격에 대해서 건반게임이라든가 게임을 통해서 애들이 이런 보상이 주어졌을 때 애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격에 있어서 연대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다,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다. 이런 것을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부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것은 진단기법이나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지금 자문을 통해서,

〈000 위원〉

- 제가 아동발달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결국 전수조사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연간 1만 명에 대해서 전체 아동을 이 체험존에 결국에 와서 체험을 하게끔 한다는 이런 사업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런 접근 방식이 지금 필요하다고 진단을 하시는 건가요?

〈소관부서1 (아동담당관)〉

-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렸지만 코로나가 지나고 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아이들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느끼는 것을 방침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한 85%의 학생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성이나 교우관계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자식을 둔 학부모지만 만약에 이 활짝센터가 있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가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는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000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이걸 의문인데, 아이들의 심리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지. 또 적성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 나이 때 진로를 명확히 탐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한 건지, 그게 포커스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소관부서1 (아동담당관)〉

- 메인은 아이들의 심리상담입니다.

〈000 위원〉

- 이게 지금 상담인력이 8명이더라고요. 전체 인력은 13명이고.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리모델링비를 빼면 13억 정도인데 이게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소관부서1 (아동담당관)〉

- 저희가 예산은 좀 콤팩트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인력은,

〈소관부서2 (아동담당관)〉

- 저희가 공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상담실에서 만약에 개인상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상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상담원이 하루에 한 5건, 4건 정도로 저희도 자문도 해보고 했을 때 그 정도면 적정하다는 인원이 나와서 이 인력으로 저희가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산 산정할 때는 저희가 지금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라고 하고 있는 거기의 인력 연봉이나 이런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산을 산출할 때는 저희도 참고를 해서 작성한 부분이라서.

〈000 위원〉

-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을 잠깐 해 주실 때 심리적성체험 그건 지금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사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후속지원도 하고, 또 이게 온라인 검사도 또 별도로 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게 8명 상담인력, 5명 행정인력, 또 센터장도 있을 것이고. 이런 구조로 이게 감당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좀 우려스러워서요.

〈소관부서1 (아동담당관)〉

- 저희가 소그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문 외부 강사를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상담사로 채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정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외부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 체험부스 운영도 거기서 안내하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도 고정 인력 인건비로 한 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뉴딜일자리 이 부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가능한 최소화했습니다.

〈000 위원〉

-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000 위원〉

- 한 가지 좀 여쭙보겠습니다.

〈위원장〉

-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하시죠.

〈000 위원〉

- 여기 공간이 지금 창신동인데 이게 서울 전역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공간으로 정하신 이유나 배경이 어떤 건가요?

〈소관부서1 (아동담당관)〉

- 지금 여기가 현재 여담재라는 공간으로 여성문화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올해 10월 31일자로 위탁이 만료가 됩니다. 물론 만료돼서 저희가 이 공간을 확보한 측면도 있지만 입지상 장점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게 체험존이나 소그룹 프로그램실이나 상담실이라든지, 부모 대기공간이라든지,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연면적 한 763㎡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 맞춤형 시설을 운영하는 데 적절한 공간이 마침 있어서 이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호선 창신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가 걸리고요, 마을버스 정류장도 인근에 있어서 아이들이나 부모가 오는 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000 위원〉

-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랑 아이존센터 이것은 1개소씩 있나요? 아니면,

〈소관부서2 [아동담당관]〉

-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하나가 있고, 아이존센터는 서울에 8개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발달지원은 찾아가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 이곳은 아이들이 찾아오는 개념이라서 한 개로 감당이 될지.

〈위원장〉

- 000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000 위원〉

- 아까 설명 주시던 내용을 들으면서 아구를 좀 맞춰봤는데, 사실은 이게 서울 전체를 커버하는 일종의 광역센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 중에 초등학생의 85%가 문제다. 그 숫자가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관부서1 [아동담당관]〉

○ 교사가 판단해서 느껴봤을 때.

〈000 위원〉

○ 그런데 85%가 문제면 이것은,

〈000 위원〉

○ 그게 정상인 거죠.

〈소관부서2 (아동담당관)〉

○ 교사가 느끼는 게 85%. 교사가 학생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게 85%입니다.

〈000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 연령기 아이들의 가장 포괄적 전달체계는 사실은 학교로 하기로 정한 건데, 그러면 학교지원 사업이든지 학교지도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인 게 맞는 것 같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센터에서 제공하시겠다고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지금 다 민간영역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민간영역에 있는 걸 공공이 들어가서 가격을 낮춘다든지 돈을 받지 않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시장교란이 사실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라면 시장이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이면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더 맞는 케이스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좀 전에 교수님께서도 창신동이라는 지역 말씀하셨습니

다만 사실 거기가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요만한 때 아이들은 송영 문제가 있는데 광역센터가 송영을 해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부모가 해야 되는데 광역센터로 여기로 송파나 어디 멀리 강서나 화곡동이나 이런 데서 오기에는 너무 먼 것 같다. 그럴 바에는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고 지역사회 집 가까운 곳에서 이 비슷한 종류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맞는 사업방향 아닌가 싶어서요.

〈소관부서1 (아동담당관)〉

- 일단 먼저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요 학교에서 어린이 심리상담 문제, 이 부분을 커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봤는데요, 일선 학교 내 상담교사가 거의 태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00 위원〉

- 그 부분 문제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상담교사랑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하던 걸 시에서 서포트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나가는 것을 최근에 많이 잘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을 이쪽 부서에서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 저도 질문 하나 드리자면 학교에 위클래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클래스 외에 위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중증 같은 경우는 정신

보건센터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전달체계가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6세에서 8세면 초등 1, 2학년 정도, 유치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합니다. 정책대상으로 아동복지법상에 19세 미만까지는 실질적으로 아동으로 일단은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하나가 아동심리사 공개모집을 했는데 청소년상담사 같은 경우는 국가자격인 것 아시죠? 그런데 아동심리사는 이 자격 자체가 민간까지 포괄해서 정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랬을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을 과연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와 연계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명시적으로 제시돼야 되는데, 일단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쉽게 해서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경증 정도라든지,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그리고 스스로 체험형을 통해가지고 자기개발. 이걸 보면 마음활짝센터에서 어찌면 이게 또 진로 쪽에서도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령대에서는 차별화하려고 나름대로 갖추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약간 엇박자 비슷하다.

- 체계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명확히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파워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분석은 했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서1 (아동담당관)>

○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퇴장)

<위원장>

○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저는 사실은 이게 신규사업이어서 여러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걱정 권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다른 또 의견들이 타당하신 지적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심의 보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혹시 또 우리 내부에 계신 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담당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000 위원>

- 아까 000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우처 방식이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고, 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나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맞습니다. 여기 설치하면 제가 보기에 온라인 정도, 기존의 어떤 사업들하고 큰 차별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온라인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 참석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000 위원>

- 제 생각에는 특히 지금 보면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한 사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제시하는 목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책 브랜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서울시 전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모양새나 위상은 학부모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위원장>

- 아까 발달지원센터 같은 건 찾아가서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실질

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만 여기는 찾아가면 초등학교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랬을 때 사업의 현실성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3번 안건을 심의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3번 안건을 심의보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4> 서울핀테크랩 관리 및 운영 (재위탁)

<위원장>

- 4번 안건은 금융투자과의 “서울핀테크랩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4번 안건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핀테크랩은 여의도에 위치한 핀테크분야 기업지원시설로 2023년 7월 기준으로 98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기업 맞춤형 교육, 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국내외 기업과 금융사 등과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4월 중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시설 설치 및 위탁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 지원시설은 본 시설과 금년 5월 달에 마포에 개관한 제2서울핀테크랩, 두 곳인데요 지금은 입주기업 연차나 투자 성장단계를 고려해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시설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서울핀테크랩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탁비용에 관련해서는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십시오.

(소관부서 입장)

<위원장>

- 착석해 주시고요. 준비되셨으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핀테크랩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포에도 제2서울핀테크랩이 있거든요. 그런데 핀테크 했었을 때는 고도의 테크놀로지 아니겠습니까? 비대면 방식, 온라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핀테크랩 자체가 두 개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어떤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양 기관의 시너지를 위해서는 서로 일단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끔 통합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소관부서 (금융투자과)〉

- 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2핀테크랩 민간위탁 심사를 할 때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제2핀테크랩 심사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는 통합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핀테크랩이 올해 초에 개관되었음을 생각을 하면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부 시간을 줘야 되고, 당장에 운영 종료를 하고 통합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기관의 민간위탁기간을 '26년 12월 31일로 맞춰놓고 2027년부터는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랩, 2랩을 통합운영을 하고 창업, 초기 사업, 시장 진입, 성장, 성숙까지 전 주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맞습니다. 스타트업부터 해서 레벨업, 스케일업까지 가는 방향 자체가 예비창업, 초기창업, 도약기로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스타트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인데 이게 단절돼 있다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부서에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위원장>

- 네, 돌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 주기적 관점에서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주시죠.

(자료 배부)

<위원장>

- 그리고 이 사업이 핀테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도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고도의 테크놀로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과연 어떤 차별화된 내용들을 추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소관부서 (금융투자과)>

- 저희 창업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지원을 해주

기 위해서 서울 핀테크랩 제1랩, 2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기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핀테크 기업들이 저희 기관에 모여 있어서 있는 시너지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관리적 측면에서 성과 지표를 보다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성과관리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표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관부서 (금융투자과)>

- 저희가 얼마 전에 민간위탁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과평가지표나 이런 것은 핀테크 기업이 잘하는 것과 핀테크 기업 개개의 성과와 운영기관이 얼마나 잘해서 도와줬느냐를 분리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지적을 반영을 해서 '24년 평가지표는 좀 더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여기 보면 통계에서 말하는 공변량이 있거든요. 기업이 잘해서 성과가 높을 수 있고, 지원을 잘해서 성과가 높을 수 있고, 둘이 합

쳐서 시너지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참 어렵지만 좀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량화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심의의견 없으면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소관부서 (금융투자과)〉

○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퇴장)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참고로 오늘 000 교수님이 못 오셨는데, 주심의견을 주시면서 이 부분을 부서에 확인을 해달라고 하셔서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2027년부터 통합하겠다는 부분하고, KPI도 좀 더 고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위원장〉

○ 그래서 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들어온 메일은 보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 두 번째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심 의견을 대표해서 4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5〉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관리 및 운영 (재위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안건. 청소년정책과의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오늘 마지막 안건 5번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노원구에 위치한 청소년특화시설로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대안교육과정 운영, 직업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해서 2019년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당초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도 지난번에 저희가 7월 초에 심의 보류를 한 바 있어서 부서에서는 2개월 정도 연장해서 내년 2월 말에 종료시키고, 그 이후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시설 설치 및 민간위탁의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그리고 서울특별

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5일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청소년특화시설로서의 차별성 미흡, 그리고 권역별 전달체계 등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유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보완사항이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서 차원에서 검토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간다면 우려했던 부분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미래진로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수탁기관의 문제도 전문성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첨단기술분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실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예산과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사시설에 대비해서 일반직 범위 이내고, 사업비도 총 세출예산 30% 이상 책정되어서 규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입실시켜 주십시오.

(소관부서 입장)

〈소관부서1 (청소년정책과)〉

○ 안녕하세요?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사실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간위탁심의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통해서 의견교환이 좀 있었고, 받았던 자료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배부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질의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지난번 심의 보류를 할 때 이 해당 서비스가 앞으로 왜 계속 서울시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야 하는지. 권역별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전략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제시돼서 오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야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런 부분은 그림은 안 그려지는 상황일 것 같고요. 제가 그걸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기존에 3개 기관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다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럼 두 개로 되면서 이쪽에 예산 증액이 됐느냐, 사업 증액이 됐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게 사실 아니거든요. 하

나가 그냥 없어진 것이지. 그 부분에서 과연 이 청소년 미래진로특화 체험시설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가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사실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장기전략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시는 제가 느끼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1 [청소년정책과]〉

-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000 위원〉

- 그다음에 운영평가보고서 등등을 제가 다 이게 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을 하니깐 진짜 꼼꼼하게 봤는데, 일단 노원센터 사업계획서를 보면 타 센터에 없는 특이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제공 목표로 18만 명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목적사업인 지역사회 소통 연결 허브라는 사업에 14만 2천 명을 할당을 한 상태입니다. 18만 명 중에 14만 2천이니깐 이게 제일 핵심사업이라고 인원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관부서1 [청소년정책과]〉

- 어떻게 보면 지역연계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서는 홍보사업이라고 일단은 생각은 되고요. 솔직히 처음에 이 계획이라는 게 연초에 세워진 것이라서, 시설에서 연초에 세워진 것이라서 만약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그 목표

인원이 14만 명이 아닌 다른 인원으로 제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타 다른 평가에서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홍보라든지 홈페이지 방문이라든지 그런 실적도 들어가는 면이 있어서 일단 계획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됐고. 저희가 다시 대면과 비대면 관련해서는 여기 의뢰서에다가는 일단 숫자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획서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다시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사실 이게 유사사업이 적기 때문에 이걸 사실 어디다 비교 기준점을 두고 운영을 해가고 방향을 세워야 할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보내주셨던 자료에서 보면 대면, 비대면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왔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 대표 플랫폼 4개를 다 체크를 해봤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영상 15개 올라와서 총 조회수는 2,340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평균 лай크 수는 보통 10개 내외 정도고. 그런데 4개 플랫폼을 제가 블로그도 여러 번 들어가서 보면 투데이 방문자 수가 뜨거든요. 이걸 어떻게 합쳐도 몇 만이라는 숫자가 사실 나올 수가 없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한번 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관부서2 (청소년정책과)〉

- 저희가 그때 확인했을 때는 이것은 그냥 홈페이지 방문자만도 실

적으로 카운팅 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비전문가로서 홈페이지 방문만으로도 실적 카운팅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여쭙봤는데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말씀하시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를 방문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의 성과지표로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물론 약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집계가 되고 있는 게,

〈000 위원〉

- 이게 그냥 오버됐다는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세울 때 18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총 행정 수요를 놓고 볼 때 18만 중에 14만이 요건데, 그러면 사실 그 기관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굉장히 과다 계상됐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다 계상이면 사실 인력편성 부분, 예산 부분, 이 부분이 사실 다 재검토돼야 되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관부서2 (청소년정책과)〉

-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주신 의견 반영해가지고 향후에는 성과를 분류해서 정말 그건 어떻게 보면 양적 카운팅이다 보니 그건 별도로 평가를 하고 평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예산담당관에서 보기에 이거 문제 없습니까?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사업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000 위원〉

- 네. 18만 중에 14만이 비대면인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체계 내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인력 배치돼 있는 건 문제 없는 겁니까?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사실 다른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인력 정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노원미래진로센터 같은 경우는 그게 따로 없어서 유사시설 규모 대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사실 이 센터의 사업 총량이 저는 지금 굉장히 빡튀기 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구 위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 번 의견을 드렸었고, 당장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성동인가는 지금 시범사업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 센터를 쪽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센터에 기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들 중

에 노원구청 청소년 관련 팀장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노원구 무슨 신문, 구 그쪽 자치구 신문, 거기 신문 발행인인가 그분 들어가 있고, 그 일대 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이랑 들어가 있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역사회 구성원, 노원구 및 동북 3구 구성원들이 광운대 교수님들 몇 분 빼놓고는 운영위원회에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관이 과연 서울시 기관이 맞나,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센터가 제출했던 홍보 실적자료가 있어요. 운영평가보고서 안에 있습니다. 보도 실적의 3분의 1이 노원구청 소식지입니다. 또 나머지 3분의 1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분, 동북 지역신문, 거기 기사 나온 게 있고. 그리고 또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미래진로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딱 한 사람 누구 인터뷰가 올라가 있어요. 노원구 거기 구의원 인터뷰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노원구 것 같은데, 노원구가 지금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왜 시는 이것을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이제 퀘스천이 있어요.

현재 이 센터 명칭 자체도 서울시 광역 무슨 센터가 아니라 노원 무슨 센터잖아요. 명칭, 구의원 홍보하고 있는 것, 홍보사업도 구 소식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견학 온 주체들도 리스트 쪽 보내셨던데 보니까 다 우리 서울 각 자치구 구청장님들이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것은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자치구 사업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시의 철학을 여쭙봤었어요. 이것을 정말 중시하고 있느냐. 철학이라는 측면은 이런 겁니다. 청소년들을 과학기술이나 첨단분야로 진로 이행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이 센터를 운영하려는 건지, 아니면 일종의 청소년 교양교육활동 차원에서 이걸 가고자 하는 건지. 지금 이 센터 내 프로그램을 보면 이 두가지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센터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건 저는 전자의 방향이었다고 보거든요. 이 전자의 방향이 중요하다면 시에서 센터도 더 만들고 신경을 쓰셔야죠. 이것을 권역별 사업을 하셔야죠.

두 번째는 이 분야의 특성상 이것을 보면 드론 실습도 하고, 첨단기자재 이런 것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이 센터의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험실습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교육참여 중심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방향을 자꾸 광역 거점을 보면서 온라인 교육 강화 쪽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면 이쪽 앤드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과 70% 겹칩니다. 파이썬 교육, 그다음에 입체드로잉 이걸 겹칩니다. 그런데 이 앤드센터 쪽에서 올려놓은 영상은 줌 강의 영상 실시간 그냥 그것을 올려놓은 것이고, 서울시교육청 것은 제작비 다 들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해가지고 올려놓은 것이고. 그럼 어느 쪽이

지금 퀄리티가 더 높다. 이걸 같은 프로그램인데 서울시교육청 계획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럼 굳이 이것을 이쪽 센터에서 온라인 활성화라고 이걸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 맞다면 서울시가 추진해 간다고 했을 때 강점과 철학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조금 밑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센터를 계속 가지고 가고 말고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혹시 어떠신가요?

〈소관부서1 (청소년정책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저희도 일단 미래진로센터가 서울시에서 3개였다가 이제 2개가 된 건데 하나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없어진 것은 일단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 부지라든지 재산이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산이 아니다 보니 저희에게 그렇게 권한이 없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없앤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그것을 처음부터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도 의견을 타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도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다들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걸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가 모든 시설하고 그것을 다 넘겨줄 테니까 공간만 마련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원하는 자치구나 교육청에서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은평미래진로센터는 없어지게 된 것이고.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동청소년수련관이죠. 센터가 성동

만 간 것도 성동만 위임을 원했었고, 저희가 21개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다른 자치구들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위임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자치구들이 위임하는 것을 그렇게 본인들이 달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그 큰 시설을 받기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걸 계속 지금 노원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새로 권역별로 만들고 싶은 건 저희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직담당관에서 신규시설을 할 때도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시의회에서도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건 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좀 장기간에 걸쳐서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이다.

특히 부지가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민간건물에는 재산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건물에는 저희가 솔직히 들어가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 면으로 또 고려해서는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노원센터가 지역적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 운영위원회라든지 그쪽에 있는 분들을 섭외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고요. 지역신문이라고 한다고 하시면 솔직히 저희 자치구에도 여러 곳에다가 홍보를 하고는 싶죠. 그런데 그게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서

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홍보 보도자료를 뿌려도 이게 주요 일간지에 나오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자료들이 이쪽 지역에 있는 홍보 그쪽에서 그걸 받아서 작성한 면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시설이나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고. 코로나 때 온라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올 때를 대비를 해서 꼭 대면만이 아니라 온라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있어요. 그런 모든 청소년시설에다가도 온라인 운영을 한번 프로그램 운영을 해봤으니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온라인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보라는 것을 저희는 요구는 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있어서의 질 문제는, 그것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2 [청소년정책과]〉

- 저희 미래진로센터는 교육청이랑 차별화 되어 있는 게 이 센터 안에서 4차 산업에 관련된 모든 직업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 있었고. 사업도 온라인 위주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강점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이걸 다 경험을 해보고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 센터 한번 가봤을 때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너

무 멋진 센터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노원구에 한정해서 노원구민들 위주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희도 서울시에 많은 아이들이 이걸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의 생각은 그렇고요.

물론 시설형의 한계는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물론 가까운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건 있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동북4구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고, 진짜 횡수로 보면 큰 횡수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전역에 찾아가는 앤드센터도 하고, 실제로 찾아가서 그런 직업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특히 이번에 은평센터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역할도 사실은 일정 부분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더군다나 자치구 위임보다는 서울시가 조금 더 중장기 발전을 보완을 해서 서울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소관부서2 (청소년정책과)〉

- 영등포.

〈위원장〉

○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노원이라고 하는 명칭 보다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시립북부청소년미래진로센터라고 한다든지,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는 남부라고 한다든지. 점차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원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구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특화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머지 수련관 21개소는 각 자치구별로 일단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치구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수련관 네이밍을 할 수가 있는데 특화센터가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4군데 이상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홍보적 측면에서 일단 클릭한 횟수로 14만 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단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단회성도 있고 다회성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참여했는지,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차피 수련시설 평가지표는 특화시설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사업계획서에 녹였다고 한다면 성과가 정량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AI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4차 산업 플러스 AI 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하다 보면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하고는 약간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필요가 있겠는데 물량으로 때려버리면 양질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으로 훨씬 더 아이들이 좀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스스럼없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관부서1 (청소년정책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위원장님께서 사실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가 철학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사업을 중단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권역별 플랜 같은 것들, 동서남북에 하나씩 한다든지, 이 부분이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렇게 해서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권역별로 또 설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1 (청소년정책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소관부서1 (청소년정책과)>

○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퇴장)

<위원장>

○ 주심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사업을 부서에서 계류처럼 생각하고 있나 싶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조건부 적정으로 하고, 대신에 권고는 장기플랜을 어떻게 할 건지 중장기 플랜을 제출해 달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조건부 적정으로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런데 조건부 적정 하면 다시 한번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조건부 적정 하면 10일 이내에 어떻게 조치할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확인을 받고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해도 뭐,

<000 위원>

- 네.

<위원장>

-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5번 안전을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서울시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6분, 폐회】